10.15686/fkl.2024..62.176 OPEN ACCESS

김말봉 소설 속 ‘성노동자’들

변하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들어가며
2 지배 질서를 교란하는 주체들-『밀림』, 『찔레꽃』
3 구제 대상으로서의 ‘백색 노예’-『화려한 지옥』
4 나가며: ‘자발/비자발’의 위계를 넘어서

국문초록

기존의 연구들에서 김말봉의 성노동자 형상화 방식에 대한 분석은 해방 후 공창폐지운동을 다룬 소설들에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다. 이 글은 그와 같은 연구사를 보완할 목적으로 식민지기 소설들과의 연장선상 속에서 김말봉의 성노동자 형상화 방식을 논한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밀림』(1935~1938), 『찔레꽃』(1937), 『화려한 지옥』(1951)이다. 각각의 소설들에서 성노동자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밀림』과 『찔레꽃』에서는 이들이 저마다의 욕망과 행위성을 지닌 주체로 등장하는 반면, 『화려한 지옥』에서는 행위성이 소거된 존재로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퇴행의 원인을 김말봉이 '자발적 성매매/비자발적 성매매'의 이분법적 구도로 경사되었던 것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자발/비자발'의 구도를 탈피한 성매매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본고는 그것으로 '성노동'이라는 개념 틀을 제안한다. 이때 '성노동'이란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 매춘여성과 비매춘여성이 연결되는 자리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매매 여성은 구제 또는 배제의 대상이 아닌 연대의 대상으로 상상될 수 있다.

국문핵심어: 김말봉, 성노동, 기생, 공창제, 백인 노예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김말봉은 대중소설 작가인 동시에 공창폐지운동을 이끈 여성운동가였다. 이 같은 전기적 사실에서 말미암아, 폐창 창기 채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화려한 지옥』(1951)[1]은 김말봉 문학 연구사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1 『가인의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1947년 7월 1일부터 1948년 5월 8일까지 『부인신보』에서 연재되다가 중단되었고, 그 뒤 1951년 문연사에서 『화려한 지옥』으로 출간되었다. 본고는 김말봉, 『김말봉 전집 4: 가인의 시장/화려한 지옥』,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5를 참고하였다. 이하 『화려한 지옥』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소설 제목과 쪽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최미진[2]은 김말봉이 공창폐지운동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화려한 지옥』을 창작했다고 보고, 해당 소설의 대중성 획득 전략을 고찰한다. 최지현[3]은 『화려한 지옥』 속 공창폐지운동을 해방 이후 여성 주체가 '국민'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여성연대로 의미화한다. 박선희[4]는 신문연재소설이었던 『가인의 시장』이 연재 중단되었다가 단행본 『화려한 지옥』으로 출간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개작 양상에 천착하여 김말봉의 여성해방 의식을 밝혀낸다. 반면, 배상미[5]는 『화려한 지옥』이 지식인 여성의 입장에서 성노동자를 향한 낙인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문제 삼는다. 배상미[6]에 따르면, 이처럼 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을 재현하는 『화려한 지옥』은 '징후적 읽기'의 독법을 취할 경우 공창폐지운동의 한계를 폭로하는 소설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김말봉이 『화려한 지옥』에서 형상화한 공창폐지운동이 성노동자 여성을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한 배상미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공창폐지운동에 관한 김말봉의 논설이나 공창폐지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소설들과의 연관 속에서 논하기보다는 식민지 시기 김말봉 소설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살피고자 한다. 기실 김말봉은 등단작 「망명녀」(『중앙일보』, 1932.1.1.~10.)에서 이미 기생에 주목한 바 있다.[7] 이 소설의 주인공인 기생 산호주(순애)는 여

2 최미진, 「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 『현대소설연구』 제3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3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 연대(solidarity) 연구-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4 박선희, 「김말봉의 『佳人의 市場』 개작과 여성운동」, 『우리말글』 제54집, 우리말글학회, 2012.

5 배상미,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 운동의 한계-김말봉의 《화려한 지옥》, 박계주의 《진리의 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6 배상미, 「공창폐지 운동과 그 유산-김말봉의 『화려한 지옥』과 『별들의 고향』」, 『현대소설연구』 제9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7 해당 소설을 다룬 연구로는 박산향, 「김말봉 단편소설의 서사적 특징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3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배상미,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 제58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배상미,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에 재현된 삐라를 둘러싼 정동과 출판문화」,

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 윤숙과의 재회를 계기로 기생 생활을 청산하고, 윤숙의 약혼자 윤창섭과 만나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이는 일견 순애가 윤숙과 윤창섭에 의해 구원받는 듯한 서사로 읽히지만, 그가 두 사람을 두고 만주의 봉천을 향해 홀로 떠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된다는 점은 순애를 단지 피동적인 지도와 계도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순애의 표상은 이후 1930년대 중후반에 연재된 김말봉 장편소설 속 성노동자 여성 인물들의 성격을 예시한다. 이들은 공창폐지운동을 다룬 김말봉 소설에 등장하는 성노동자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에서 이 지점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밀림』(1935~1938)[8]과 『찔레꽃』(1937)[9], 그리고 『화려한 지옥』(1951)에서 그려지는 성노동자 여성 인물들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김말봉 소설 속 성노동자 형상이 해방을 기점으로 어떻게 굴절되었는지 그 변모 양상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그로써 김말봉이 구상한 공창폐지운동의 내적 논리와 그 한계를 포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분석에 돌입하기에 앞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성노동자'라는 개념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어떻게 지칭할 것인지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10]이 제정되면서

『우리어문연구』 제65호, 우리어문학회, 2019.

8 『밀림』 전편은 『동아일보』에서 1935년 9월 26일부터 1936년 8월 27일까지 연재되다가 『동아일보』 4차 정간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며, 1937년 11월 4일부터 연재가 재개되어 1938년 2월 7일에 총 298회로 완재되었다. 이후 『밀림』 후편이 1938년 7월 1일부터 1938년 12월 25일까지 연재되었으나 완결되지 못하고 미완으로 끝났다. 본고는 김말봉, 『김말봉 전집 1: 밀림 (상)』,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와 김말봉, 『김말봉 전집 2: 밀림 (하)』,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를 참고하였다.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책 제목과 쪽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덧붙여, 『밀림 (상)』과 『밀림 (하)』는 『동아일보』 정간 전후를 기준으로 구분됨을 밝혀둔다. 그에 따라 『밀림 (상)』에는 『밀림』 전편 233회까지가 수록되어 있다.

9 1937년 3월 31일부터 1937년 10월 3일까지 『조선일보』를 통해 연재되었다. 본고는 김말봉, 『김말봉 전집 3: 찔레꽃』,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를 참고하였다.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책 제목과 쪽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10 전북 군산시의 성매매 집결지(일명 '쉬파리 골목')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화재 참사를 계기

기존의 '윤락행위'[11]를 대체할 용어로 '성매매'가 새롭게 채택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서 벗어나 성매매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토대를 마련했다"[12]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었으나, 해당 법률이 전제하는 '성매매 피해자'라는 규정은 여전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 여성들의 행위성을 간과하고, 이들의 경험을 '피해'로 일원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일부 당사자 여성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전국성노동자연대'를 결성하여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거부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말하고 싸우는" "시민사회의 평등한 일원임을 선언"[13]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여성단체들에 의해 업주에게 세뇌당했거나 거짓말하는 것으로 손쉽게 치부되곤 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처럼 성매매에서의 자발성을 드러내는 여성들은 현행 법률 내에서 범죄자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피해'를 입증해낸 성매매 여성만이 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여성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강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설사 피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로 인정할 것인지는 담당 수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형사사법기관의 관련자가 ['성매매

로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11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법률 제771호)에서 처음 고안된 용어다. 이때 '윤락(淪落)'은 "'빠지고(몰락하고) 떨어진다(타락한다)'"라는 의미로, 곧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상태, 여성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뜻한다.(박정미,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 김대현 외, 『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 휴머니스트, 2022, 197쪽.) 한편, 윤락행위방지법은 "요보호여자(要保護女子)", 즉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선도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보호지도소와 직업보도시설의 운영을 명시했다. 이는 요보호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도,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조치"였다.(박정미, 「'여자'가 '보호'를 만났을 때: 요보호여자시설, 기록과 증언」,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43쪽; 50쪽.)

12 장다혜,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처벌은 누구를 향하는가」, 김대현 외, 앞의 책, 2022, 81쪽.

13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a, 408쪽.

피해자'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 해당 여성에 대한 처분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14]가 발생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매매 공간 내에서 여성들은 "법의 일반화된 규정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차이의 현실"[15]을 살아간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자발'과 '비자발'의 명료한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자발/비자발'의 이분법에 근거한 성매매 패러다임은 당사자 여성의 속성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그리고 이들을 '자발적 성매매 여성' 대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이라는 구도 아래 임의적으로 분할하고 전자를 배제함으로써 성 산업을 작동시키는 보다 거대한 구조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성매매 당사자의 행위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성 산업의 착취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성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단순히 성매매 정당화를 목적으로 한 성매매의 대체 용어가 아니다. '노동'이라는 말은 오히려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 속에서 "여성을 자유로운 '노동자'로 착취(exploitation)하고 종속적인 '타자'로서 수탈(expropriation)"[16]하는 성 산업의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민가영이 적실히 지적한 바 있듯이, 그와 같은 구조 속에서 판매되는 것은 단지 '몸'이나 '섹스'만이 아니다.[17] 성매매 공간에서 여성들은 "여성성 전반"[18]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성노동'은 '성매매'가 상정하는 직접적인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뿐만 아니라,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자원이 되는"[19] 모든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유용하다. "무엇이 노동으로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지는지는 문화적이

14 장다혜, 앞의 글, 2022, 96쪽.

15 김애령, 「법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성매매와 법」,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편,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그린비, 2007, 103쪽.

16 김주희·황유나, 「'성매매는 성착취' 구호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한국여성학』 제40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24, 235쪽.

17 민가영, 「성매매를 통한 친밀함의 모방」, 『한국여성학』 제35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19, 145쪽.

18 위의 글, 130쪽.

19 문은미, 「노동자원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연구」, 『여/성이론』 제3호, 도사출판여이연, 2000, 156쪽.

고 구성적이며, 무엇보다도 현재의 가부장적인 체제 속에 놓여 있다"[20]는 남승현의 주장을 떠올린다면, 보다 확장된 '성노동'의 틀로 사유하는 일은 여성의 '성'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구조 자체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져 매춘여성[21]과 비매춘여성 사이의 연대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다.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에 있다. 김말봉의 소설을 경유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김말봉 소설 속 성노동자 재현이 '자발/비자발' 구도의 도입과 함께 협소화되어가는 국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배 질서를 교란하는 주체들-『밀림』, 『찔레꽃』

『밀림』과 『찔레꽃』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노동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 나간다. 이하의 단락에서는 이들의 생애를 좇아가는 방식으로 이들이 무엇을 욕망했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들을 해나갔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밀림』의 요시에다. 요시에는 상만이 일본 유학 시절 산구(山口, 야마구치)에 있을 때 머물던 하숙집의 딸이었다. 요시에의 고백으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으나, 조선에 약혼자(인애)가 있는 상만으로서는 그와 정식으로 결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리하여 상만은 요시에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동경으로 도망간다. 그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상만이 서 사장(자경의 부친)의 비서 자격으로 일본에 출장을 오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동경의 한 카페에서 재회한다. 그 사이 요시에는 카페 여급[22]이 되어 있었

20 남승현,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성매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묻는다」, 김대현 외, 앞의 책, 2022, 230쪽.

21 이 글에서 '매춘'은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용어는 판매 행위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매자 남성을 비가시화하고, 판매자 여성('매춘부')만을 낙인찍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박정미, 앞의 글, 2011a, 28쪽.) 본고에서 '매춘' 또는 '매춘여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같은 사회적 배제를 의식하면서 사용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22 19세기 서유럽에서 기원한 카페는 본래 사교를 목적으로 모여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며 정치적, 철학적 토론을 나누는 "대중의 문화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카페는 근대 시기 일

다. 요시에는 자신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만을 거침없이 조소하는 한편, 아들 학세를 보여주기 위해 그를 이끌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서 감격에 젖은 상만은 자신들을 데려가 달라는 요시에의 부탁에 상황만 안정되면 반드시 그리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조선에 다시 돌아온 상만은 학세의 양육비는 꼬박꼬박 부쳐줄지라도 조만간 조선으로 가겠다는 요시에의 말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을 반복한다. 이는 물론 인애와 자경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만에겐 요시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갈등 끝에 상만은 인애를 배반하고 자경과 결혼한다.[23] 이로써 기존의 삼각관계에서 인애가 탈락할 무렵, 요시에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학세를 데리고 경성까지 온 요시에는 상만을 찾아 그의 회사에 갔다가 상만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된다. 큰 충격에 빠진 요시에는 순간 자살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복수를 다짐한다. 그 첫 단계는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자경과 신혼여행을 떠나는 상만에게 꽃다발을 선물해 주는 것이었다.

김말봉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당 장면에서 요시에가 학세에게 하는 말("자 꽃을 드려요 그리고 인사를 하여야지"(『밀림 (상)』, 599))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저주와 악담과 조롱과 복수의 온갖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선전포고"[24]라

본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문화적 변형"을 겪게 된다.(박진경·미야지마 요코, 「카페의 식민지근대, 식민지근대의 카페: 재조일본인 사회, 카페/여급, 경성」, 『한국여성학』, 제36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20, 114쪽.) 그것을 추동한 것은 다름 아닌 카페 여급의 존재였다. 이들은 "에로틱하도록 강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성노동자"였다.(미리엄 실버버그, 강진석·강현정·서미석 역,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 근대 일본의 대중문화』, 현실문화연구, 2014, 161쪽.) 이처럼 여급의 에로 서비스를 전제하는 일본식의 카페는 식민지 조선에도 수입된다. 1911년 조선에 처음 상륙한 카페는 1930년대에 이르러 급격한 양적 팽창을 보이며 전성기를 맞이한다.(김연희, 「日帝下 京城地域 카페의 都市文化的 特性」,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i 쪽; 13-15쪽.)

23 이때 두 사람의 결혼의 계기가 되는 것이 상만의 겁탈이라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다. 다만 본고의 목적은 『밀림』 속 성노동자들의 형상을 보는 데에 있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생략한다.

24 김말봉, 「나의 분격」(『삼천리』 8(12), 1936.12), 『김말봉 전집 7: 해방 전 단편서사 모음』,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8a, 178쪽.

고 할 수 있다. 뒤이어 요시에는 상만 내외와 같은 열차에 탑승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예약해둔 평양 여관에까지 따라온다. 그런 요시에로 인해 계속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상만은 그에게 일단은 경성으로 돌아가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전하기로 한다. 하지만 요시에는 그 편지를 도로 상만의 방에 가져다주고, 편지의 내용을 자경에게 들킬 뻔한 상만은 지나치게 화를 내 자경을 노엽게 한다. 비록 요시에는 학세가 병이 나는 바람에 상만의 신혼여행을 끝까지 훼방하지는 못하고 여관을 떠나지만, 이후로도 상만과 자경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복수를 이어간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만은 자경과의 신혼집과 요시에의 집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해 나간다. 이때 요시에는 상만을 독점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 가령, 상만에게 최면제를 먹이거나 아들 학세를 이용해 상만의 부성애를 자극하는 식이다. 이는 언뜻 악첩의 면모처럼 비추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선첩-악첩'의 이분법적 구도 위에서 악첩을 비난하고 선첩을 칭송하는 것은 기실 축첩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들이 만들어낸 전략에 불과하다.[25] 그런 의미에서 요시에의 행위는 그들이 은폐하고자 했던 축첩제의 부조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나아가 요시에는 스스로 '첩'의 자리를 박차고 나선다. 그것은 상만을 중심으로 한 삼각관계의 구도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근대 시기 일부일처제가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첩이 "사회의 개량을 위해 척결되어야 할 존재"[26]로 여겨지며 실제로 '타살(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자살)'에 의해 축출되었던 것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이다. 요시에는 일부일처제를 위해 축출당하기보다도, 오히려 상만을 축첩제와 일부일처제로부터 축출해낸다. 상만을 독

25 조선시대의 첩 담론을 다룬 연구이긴 하지만, 관련하여 황수연의 논문을 참고해볼 수 있을 듯하다. 황수연에 따르면 남성 사대부들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처와 첩의 사례를 담론화하고 그것을 칭송함으로써 축첩제의 모순과 갈등을 은폐할 수 있었다.(황수연, 「조선 후기 첩과 아내-은폐된 갈등과 전략적 화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69쪽.)

26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9권, 한국여성사학회, 2008, 93쪽.

점하기 위해 애쓰던 요시에는 자경에게 상만의 두 집 살림을 폭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편지의 진위 여부를 묻는 자경에게 상만은 누군가의 장난이라 일관하지만, 요시에의 집에 몰래 찾아간 자경은 학세가 상만을 '아빠'라 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이를 결정적 증거로 삼아 자경은 상만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결정한 시점과 맞물려 요시에는 홀연히 사라진다. 이로써 처와 첩 모두를 상실하게 된 상만은 그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경찰에 의해 연행된다. 이후 공금 횡령이라는 죄목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5년이 흘러 만기 출옥하고 난 뒤에도 그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학세를 한결같이 그리워한다. 그러나 상만은 끝끝내 학세와 재회하지 못한다. 이는 요시에가 부재로써 행하는, 영원히 완결되지 않을 또 하나의 복수라고 할 수 있다.

상만을 속여 공금 횡령을 하도록 만든 오꾸마(금순)의 이력은 몹시 흥미롭다. 열세 살에 일본인 부부에게 입양된 금순은 그로부터 2년 뒤 요정(料亭)에 예기(藝妓)[27]로 팔리면서 "오꾸마의 생활"(『밀림 (상)』, 565)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오꾸마는 일본 남성, 영국 남성, 러시아 남성, 중국 남성 등과 결합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어느 조선 청년과의 만남을 계기로 상해의 요리점을 처분하고 조선에 돌아오게 된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크나큰 심부름"(『밀림 (상)』, 567)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그 첫 단계로 경성에 댄스홀[28]을

27 '예기(藝妓)'란 "조선의 '기생'과 일본의 '예기'를 통칭하는 범주로 요리옥에서 춤과 노래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여성을 지칭한다. 이들은 "전업 성판매여성"인 '창기(娼妓)'와는 구분되는 존재였지만, 사실상 "겸업 성판매여성"으로 취급되었다.(박정미, 「식민지 성매매 제도의 단절과 연속」, 『페미니즘 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1b, 209쪽.)

28 이는 당시 조선의 현실과는 어긋난다. 일제 당국은 댄스홀을 허가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카페에서나 댄스를 접할 수 있었다.(석영, 「아이스크림(3) 카페마다 딴스홀 겸영」, 『조선일보』, 1931.06.26., 5쪽.) 이따금 경성에 댄스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돌기도 했지만(「봄의 漢陽에 딴스홀 出現?」, 『동아일보』, 1931.04.21., 2쪽.; 「딴스홀이 되면 춤추려 다니서요?」, 『삼천리』 제4권 제6호, 1932.05.15., 18-19쪽.),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1936년 4월 9일 암설생(岩雪生)이라는 필자가 『동아일보』에 발표한 논설이 주목된다. 그는 일제 당국이 조선의 댄스홀을 불허하는 것은 "강압방침"이라고 비판하면서 "강압수단을 일포(一抛)하고 일종의 오락시설로 특수구역에 딴스홀을 허가"할 것을 요청한다.(암설생, 「딴스홀 再認識」, 『동아일보』, 1936.04.09., 6쪽. 가독성을 위해 한자어는 한글로 표기하였음.) 나아가 1937년 1월에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향

차린 오꾸마는 그곳을 거점 삼아 활동을 펼쳐나간다. 그는 상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만주 무진 금광에 대한 거액 투자를 유치시키는 데에 성공한다. 물론 그것은 ××당의 지령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오꾸마가 꾸민 계략이었다. 그 과정에서 고야 형사부장에게 발각될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오꾸마는 자신의 언어 능력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한다. 광산 관계자로 분한 박영수(××당 본부 부원)와 고야 형사부장 사이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능란하게 구사하는 오꾸마의 모습은 그야말로 "글로벌한 인재"[29]에 비유되기에 적합하다. 그런데 이때 오꾸마의 언어 능력은 초국가적인 성노동을 통해 획득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오꾸마의 성노동 이력은 그에게 하나의 자원이 되어주기도 한 것이다.

상만의 돈을 빼돌리는 데에 실패한 박영수는 오꾸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야를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밝힌다. 그리하여 오꾸마는 체포될 위험에 놓이는데, 탁월한 연기력으로 고야를 속여 체포를 지연시킨 뒤 댄스홀 3층 꼭대기에서 밧줄을 타고 도망치는 화려한 스펙터클을 연출하면서 탈출에 성공한다. 이후 오꾸마는 인천으로 이동하지만 미리 대기시켜둔 배를 발견하지 못해 인애를 찾아간다. 인애에게 돈 가방을 전해주며 동섭과 함께 사회를 위해 써달라는 말을 남긴 오꾸마는 그 뒤 한강으로 돌아와 강물에 떨어져 사라진다.[30] 이때 오꾸마가 상만

해 댄스홀의 허가를 촉구하는 공개청원서가 발표되기도 한다.(「서울에 딴스홀을 許하라」, 『삼천리』 제9권 제1호, 1937.01., 162-166쪽.) 이를 고려할 때, 댄스홀이라는 '불온한' 공간을 그려내는 것은 "특정한 분위기를 창출"(장두영,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9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328쪽.)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제의 탄압에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29 김미영, 「김말봉의 《密林》과 《찔레꽃》의 독자수용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고찰」, 『어문학』 제107호, 한국어문학회, 2010, 235쪽.

30 안서현은 이 대목을 분석하면서 오꾸마가 "한강으로 떨어져 자살한 것처럼 꾸며놓은 다음 배를 타고 달아"났다고 서술한다.(안서현, 「젠더, 서사, 지도-김말봉의 초기 장편소설에 대한 '지도 그리기'의 시도」,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3, 122쪽.) 그러나 강물에 빠진 오꾸마가 한강 하류에 서 있는 배에까지 무사히 당도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밀림』 후편 연재 예고에서 김말봉이 "고야 형사부장 앞에서 귀신같이 사라진 오꾸마는 한강에 투신한 채 소식이 묘연하고."라 쓴 것으로 보건대(「장편소설 밀림 후편」, 『동아일보』, 1938.06.28., 2쪽.), 작가가 오꾸마를 죽지 않은 것으로 설정해둔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따라서 오꾸마의 투신 장면을 "팜므 파탈의 처

을 속여 획득한 돈을 최종적으로는 ××당이 아닌 인애와 동섭에게 전달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누군가의 지령이 아닌 전적으로 오꾸마 자신의 신념을 따른 것으로서, 이전까지 ××당에 의해 이용되는 듯했던 오꾸마는 이 지점에 이르러 더는 이용되기를 거부하고 동섭의 실천적 빈민구제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스스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요시에와 오꾸마는『밀림』전편에 등장하여 상만을 징벌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애욕과 물욕이라는 상만의 죄는 각각 요시에와 오꾸마로 인해 처벌된다.[31] 그로부터 5년 후 상만이 출소하고 난 뒤의 이야기를 그리는『밀림』후편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그중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권번은 물론 경성 천지에서 알아주는 일류 명기 오죽엽(금순)이다. 실상 금순은 상만과 생이별한 친동생으로, 양친을 잃은 뒤 오빠 상만이 학교 선생에게 거두어지자 오촌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게 되었다. 만주에서 몇 년 간 살고 평양에 왔을 때 금순은 14살 즈음이었다. 오촌 어른은 그를 기생학교에 데려갔고, 금순이 그곳에서 죽엽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부터 "집안 식구들의 생활비는 온전히 죽엽의 담당"(『밀림 (하)』, 203)이 되었다.

죽엽과 상만은 서로가 자신의 형제임을 알지 못하는 채로 재회한다. 오히려 상만은 애순으로부터 죽엽이란 기생에게 약혼자(형순)를 빼앗기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죽엽이 "악마 같은 요녀"(『밀림 (하)』, 461)일 것이라 상상하며 애순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죽엽을 직접 찾아간다. 이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여러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한다. 상만은 형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임을 밝히며 "기생은 기생답게 돈을 벌어야"(『밀림 (하)』, 494) 한다는 말로 죽엽을 설득하고자 한다. 이후 두 사람은 기생의 노동을 둘러싸고 열띤 토

형"이라 본 박산향의 분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박산향,「김말봉 장편소설의 남녀 이미지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15쪽.)

31 박종홍은 오꾸마를 "오상만 못지 않는 욕망의 화신"(박종홍,「김말봉『밀림』의 통속성 고찰」,『어문학』제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355쪽.)이라고 표현하며 그를 '물욕'과 연결짓는다. 그러나 그 자신도 지적하고 있듯이 오꾸마의 사기 행각은 기실 ××당의 지령에 따라 "사회 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바(같은 글, 356쪽.), 오꾸마를 추동한 것을 단순히 '물욕'이라 규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론을 벌인다.

> “돈에 팔리는 건 기생만도 아니고 여학생만두 아니고 사내들도 곧 잘 팔리던데요? 오 선생님! 당신도 보아하니 매월 백 원 내외 월급에 팔린 듯싶은데…… 내 말이 틀렸세요?”
>
> (…)
>
> “그렇지 나도 팔린 몸이지 한 달에 백 원씩에…… 그러나 나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은 없거든 내가 받는 백 원 돈과 기생이 벌어들이는 돈 거기에는 같은 돈이면서도 하나는 순전한 노동의 품삯이요 하나는 무어랄까 노동 대신에 웃음을 웃어주고 노래를 들려주고 그리고 때로는 몸뚱이까지 내어 맡기니까…… 그게 다른 돈과는 다르다는 거야.”
>
> (…)
>
> “그래 웃음을 웃고 노래를 하고 몸뚱이를 바치는 것은 노동이 아니란 말씀야요? 호호호 오 선생님 당신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 세상 물정을 좀 더 아시는 완전한 남자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 가장 고된 노동이 뭐냐 하면 기생의 노동이라는 것쯤은 아셔야 합니다. 면도 자국이 저렇게 아주 푸르시기에 난 또 대강한 일은 아시나 했더니 내 감정이 틀렸군, 호호호.” (『밀림 (하)』, 495-497)

비록 두 사람의 논쟁은 죽엽이 기생을 ‘도적놈’에 비유하는 상만의 주장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긴 하지만, 해당 장면에서의 죽엽의 발화는 충분히 귀담아들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죽엽의 주장을 거칠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단 기생만이 아니며, 기생이 하는 일 또한 ‘노동’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근대 시기 기생들은 기생을 청산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노동계급에서 배제하는 당대 현실에 맞서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확보”[32]하고자 애썼다. 이는 기생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32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Ⅱ)-‘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459쪽.

위해 적극적인 집단 대응을 전개해나갔던 것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33] 그런가 하면 기생 역시 노동자임을 직접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사례도 있다. 전난홍이라는 기생은 1927년 2월 「기생도 노동자다-ㄹ가?」라는 글을 발표한다. 해당 글이 실린 지면인 『장한』은 1927년 경성권번의 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기생 잡지로, "기생들의 직접적인 발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필자로 참여한 기생들은 1927년 당시 경성권번에서 현역으로 활동했던 기생들로 추정된다.[34] 그중 한 명인 전난홍은 "우리도 한 노동자다"[35]라고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쓴다.

>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는 것과 손으로 양금이나 가야금을 뜯는 기생은 남자 노동자보다 무한고초 가운데 노동한다.
>
> 남자 노동자는 일이나 하여주고 삯전을 받지만, 기생은 머리와 조그만 심장을 썩여가면서, 여러 손님의 안 맞는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수심이 가득하여 혈색 없는 얼굴에 다정한 웃음을 웃어가면서 노동을 하니, 남자 노동자보다 더욱 서럽고 마음 태우는 기생의 갖은 노동이 더욱 심한 줄 안다.[36]

이상의 내용은 죽엽이 "웃음을 웃고 노래를 하고 몸뚱이를 바치는" 기생들의 노동 역시 노동의 일종이며, 기생의 노동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된 노동이라고 말한 것과 통한다. 기생들의 이 같은 발화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의지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세상 사회에서는 기생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말고, 노동자라고 불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37]라는 전난홍의 문장

서지영. (2005).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Ⅱ)-'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433-464.

33 위의 글, 450-452쪽 참조.

34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Ⅲ)—기생 잡지 〈長恨〉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53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350쪽; 355-356쪽.

35 전난홍, 「기생도 노동자다」(『장한』 2, 1927.2), 화중선 외, 『기생 생활도 신성하다면 신성합니다』, 가갸날, 2019, 70쪽. 해당 책에서는 「기생도 노동자다」라는 제목으로 전난홍의 글을 싣고 있으나 원제목은 「기생도 노동자다-ㄹ가?」이다.

36 위의 책, 70-71쪽.

은 그것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죽엽은 형순과의 교제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상만을 향해 "기생은 연애도 못 하나요? 결혼도 못 하나요?"(『밀림 (하)』, 494)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는 형순의 약혼자에게 자신은 "고깃덩이를 파는 기생"이 아니라 "기생의 탈을 쓰고 있는 열녀"라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다(『밀림 (하)』, 498). 이 같은 발화는 앞선 전난홍의 문장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두 사람은 '기생이 아닌 무엇'을 지향하면서 그 '무엇'의 자리에 각각 '노동자'와 '열녀'를 집어넣는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노동자' 또는 '열녀'로 정체화함으로써 흔히 기생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지곤 하는 '노동', '절개' 등의 요소를 기생과 연결시킨다. 이는 당대의 지배 담론을 초과하는 새로운 담론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열녀'를 자처하면서 형순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드러냈던 죽엽은 곧바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죽엽의 집에 종로서 사법계 소속의 조영태 형사가 찾아온 것이다. 조 형사는 죽엽에게 밀매음 혐의를 제기하며 그를 연행해가려고 한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제강점기 기생 관련 제도를 살필 필요가 있다. 1908년 일제는 〈기생단속령〉(경시청령 제5호)과 〈창기단속령〉(경시청령 제6호)을 발표한다.[38] 두 법령은 '기생'과 '창기'의 직급이 달랐기 때문에[39] 각기 마련된 것일 뿐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37 위의 책, 71쪽.

38 엄밀히 말하면 1908년은 일제강점기 이전이지만, 1907년 7월 24일에 일제는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경찰기구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 과정에서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개칭되었으며, 이 같은 경시청제도의 도입으로 헌병경찰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었다.(김창윤, 「일제 통감부 시기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105쪽.) 그런 의미에서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은 대한제국 시기에 발표되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일제의 의도에 따른 법령 공표"였다고 할 수 있다.(박정애,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46쪽.)

39 전통적으로 기생은 일패, 이패, 삼패로 나뉜다. 일패가 "노래와 춤을 가르치고 글과 그림 및 예절을 배운 기녀"라면, 이패는 "일패에서 타락"하여 "은밀히 매춘"하는 자들이고, 삼패는 "매춘을 직업"으로 삼은 자들이다.(황미연, 『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 민속원, 2013, 48쪽.) 이 가운데 일패가 '기생(관기)'이라면, 삼패는 '창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관기제 역시 폐지되면서 이들 간의 구

기생과 창기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시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는데, 이는 기생과 창기를 공식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실상 공창제의 도입에 지나지 않았다.[40] 그에 따라 성병 검사가 의무화되었고,[41] 성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창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사창 단속은 1912년 〈경찰범처벌규칙〉의 공포로 구체화된다. 〈경찰범처벌규칙〉은 "일제가 조선인의 일상 중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었는데, 그중 제1조 제3항은 '밀매음을 한 자 또는 중개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시킨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기했다.[42] 조 형사는 바로 해당 항목에 근거하여 죽엽을 체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순은 조 형사에 맞서 죽엽과 자신은 "정당한 부부 관계"(『밀림 (하)』, 504)라고 계속해서 항변하지만,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둘의 실랑이가 지속되는 동안 방에 들어가 있던 죽엽은 조 형사의 요청에 다시 마루로 나온다. 그러더니 돌연 바닥에 주저앉아 절을 한다. 그로 인해 훤히 드러난 머리는 "가위로 싹둑싹둑 아무렇게나" 베어버린 자국으로 "마치 소가 뜯어 먹은 풀밭처럼 여기저기 허옇게 바닥"을 내보이고 있었다(『밀림 (하)』, 509). 뒤이어 죽엽은 '기생 폐업'을 선언하고 나선다.

"저는 사실로 권형순의 아내여요. 권번에 아직까지 다닌 것은 생활비를

분은 점차 모호해져 갔다.(박애경, 「기생을 바라보는 근대의 시선-근대 초기 신문 매체에 나타난 기생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333-344쪽.)

40 이후 1916년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창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41 처음부터 창기와 기생 모두에게 성병 검사가 의무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창기에게만 의무 사항이었던 성병 검사는 1910년부로 기생에게까지 확대된다.(황미연, 앞의 책, 2013, 67쪽.) 이로써 기생은 창기와 "'존재론적 동형'의 신세"가 되었다.(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5, 64쪽.)

42 박정애, 앞의 글, 2009, 84쪽.

43 일제는 사창이 창궐하는 이유로 "기생이 은밀히 성매매하는 습관"(박정애, 앞의 글, 2009, 83쪽.)을 지목했다. 그에 따라 기생의 집은 밀매음의 온상지처럼 여겨지기도 했다.(「妓生轉賣惡習, 기생 매매의 악한 폐풍」, 『매일신보』, 1912.10.16., 3쪽.)

얻고자 한 때문이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생 폐업을 합니다.”

(…)

“제가 이렇게 폐업을 하였으니 조 주사 나리께서 좀 더 관대하게 처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여기 앉은 권형순은 저와 일생을 약속한 남편이요 결코 일시적 오입 같은 그런 장난은 아니여요.” (『밀림 (하)』, 509)

죽엽의 이 같은 행위는 경찰 권력의 작동을 일거에 중지시킨다. 조 형사는 “오늘 꼭 오죽엽을 데리고 갈 작정이었는데 죽엽이가 저렇게 머리까지 베고서 폐업을 하였다니 나도 이 이상 더 말을 하지 않겠소.”(『밀림 (하)』, 511)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난다. 해당 장면은 죽엽이 머리를 밀어 기생 정체성을 버리고 난 뒤에야 죽엽과 형순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본고는 죽엽이 일제의 기생 감시·관리 체제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에서 우선적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찔레꽃』의 옥란 또한 죽엽과 마찬가지로 기생이다. 그러나 그는 ‘열녀’이길 자처한 죽엽과는 다르게 ‘정조’는 “밥 있고 옷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치품”(『찔레꽃』, 106)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이는 여성과 정조의 문제를 또 다른 차원에서 사유하도록 이끈다. 통상적으로 정조 이데올로기는 여성 일반을 억압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런데 하층 계급의 여성들에게 있어 정조란 더 나아가 애초부터 지향 불가능한 것임을 옥란은 주장한다. 옥란이 근호를 배반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옥란과 근호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한다. 그에 옥란은 “근호 이외에 남자와는 만나지 않기로”(『찔레꽃』, 105) 맹세하고 기생 일을 그만둔다. 하지만 옥란에겐 부양해야 할 식구들이 여럿 딸려 있었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 근호의 월급은 턱없이 모자랐다. 결국 옥란은 다시 기생 일을 시작하여 근호 몰래 ××은행장 조만호와의 만남을 이어간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사실을 근호에게 들키게 된다.

충격에 빠진 근호는 옥란의 집에서 나오기로 하지만 옥란을 완전히 단념할 수는 없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옥란과 조만호를 목격한 근호는 이성을 잃고 칼 한 자루를 든 채로 옥란의 집에 쳐들어간다. 옥란은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근

호에게 절절히 사랑을 고백하며 그와 같이 멀리 떠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 옥란의 연기였을 따름이다. 옥란에게는 조만호의 정실부인이 되겠다는 더 큰 포부가 있었다. 옥란과 떠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옥란을 데리러 온 근호는 옥란과 조만호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된다. 이후 그는 옥란을 향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 그런데, 옥란이 근호를 배신하면서까지 이루려던 계획은 결국 좌절되고 만다. 옥란의 요청에 따라 그를 정실부인으로 들이겠다던 조만호가 옥란이 아닌 여성(정순)과 결혼할 작정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사랑도 돈도 모두 잃게 된 옥란은 조만호에 대한 복수를 꾀한다.

『찔레꽃』의 결말부는 조만호의 집에 몰래 침입한 옥란이 조만호와 그의 정실부인이 될 정순을 처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사실 옥란이 정순으로 오해한 인물은 침모 박 씨의 딸 영자였다. 침모 박 씨는 조만호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정순으로 둔갑시켜 두 사람의 합방을 추진한다. 이 시점에서 『찔레꽃』의 메인 플롯이라고 할 수 있을 경구-정순-민수-경애의 사각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정순과 민수의 사랑은 정순이 가정교사로 조만호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차 위태로워진다. 정순은 ××은행장 조만호에게 민수네의 토지경매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조 두취가 던지는 암시"(『찔레꽃』, 140)를 의식하여 민수를 사촌오빠라 소개한다. 이후 조만호의 딸 경애는 민수를, 조만호의 아들 경구는 정순을 좋아하게 되면서 네 사람의 관계는 한층 복잡해진다. 한편, 이들의 사각 관계에 더해 침모의 흉계로 조만호가 (가짜)정순과의 약혼을 선언하며 조만호와 경구도 정순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게 된다. 이처럼 『찔레꽃』은 여성 주인공 정순을 둘러싼 애정 관계를 주축으로 전개되는 소설이다. 이때 정순은 갖가지 오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그 같은 시련을 유발한 원흉은 단연 조만호와 침모 박 씨다. 그런 의미에서 옥란이 조만호와 침모의 딸을 칼로 공격한 것은[44]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악(惡)에 대한 징벌을 수행

44 조만호는 "왼편 귀밑에서 줄줄 피가 흐르는"(『찔레꽃』, 502) 것으로, 영자는 "갑상선을 한 일자로 칼날을 받은"(『찔레꽃』, 503) 것으로 서술된다. 이후 두 사람은 병원으로 실려 간다.

한 것이기도 했다.[45]

그러나 옥란에 의해 악(惡)이 청산되고 모든 오해가 해소되었음에도, 정순과 민수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용서를 구하는 민수를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온 정순에게 경구가 찾아오는 마지막 장면은 경구-정순, 민수-경애의 결합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 같은 구도는 기실 정순이 조만호의 눈치를 보느라 민수를 사촌오빠라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결국 조만호가 구축한 질서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 된다. 옥란이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면서까지 그 질서를 깨부수고자 한 것과는 구분되는 지점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옥란은 현장에 출동한 순사를 향해 웃는 얼굴로 당당히 자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남겨진 네 인물(민수, 정순, 경애, 경구)은 애수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이상으로 『밀림』과 『찔레꽃』의 성노동 종사 여성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각기 다른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배 질서를 거침없이 교란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은 남성들을 농락하고, 식민 권력에 도전하며,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거나, 새로운 담론을 생성해낸다. 심지어 필요에 의해서라면 위반도 서슴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밀림』과 『찔레꽃』의 성노동자 여성 인물들은 운명의 소용돌이에 그저 휘둘릴 따름인 주동 인물보다도 어쩌면 더 강력한 행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구제 대상으로서의 '백색 노예'-『화려한 지옥』

『밀림』과 『찔레꽃』에는 공통된 비유가 하나 출현한다. '백색 노예'가 바로 그것이다. 『밀림』의 상만은 죽엽을 보고서 "너는 거짓으로 무장한 백색노예. 그런고로 나는 너를 한 개의 저주받은 인형으로밖에 더 보지 않는다."(『밀림 (하)』, 488)라고 생각하고, 근호는 옥란을 처음 보았을 때 속으로 "학대 받는 백색 노예

45 진선영은 이 같은 옥란의 행위를 "'악(惡)'을 통한 '악(惡)'의 징벌"이라 서술한다. 즉, "'돈'을 선택함으로써 '악'의 측에 서게 된 옥란이 복수심으로 의도치 않게 또 다른 '악'을 제거하였다"는 것이다.(진선영, 「김말봉 초기소설 연구-『찔레꽃』을 중심으로」, 김말봉, 『김말봉 전집 3: 찔레꽃』,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 518쪽; 522쪽.)

여!"(『찔레꽃』, 105)라고 부르짖는다. 이때 '백색 노예'란 '백인 노예'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19세기 말, 백인 여성들이 "유럽 각지와 중동과 아프리카의 노예시장에 팔려나가는 현상"은 '백인 노예제도' 또는 '백인 노예매매'라 불리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해당 용어는 인신매매와 매춘을 연결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백인 노예'는 매춘여성 일반을 일컫는 말로도 확장되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백인 노예매매'라는 수사를 동원한 반매춘·반인신매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에 대응해 유럽 국가들은 1902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파리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백인 노예매매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904년 5월 18일 파리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이를 기초로 한 '백인 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정'을 체결하였다.[46] 일본은 1925년 10월 21일 해당 협정에 가입한다.[47] 이후 협정문이 일본어로 번역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당시 조선에도 유입됐으리라 짐작된다.[48] 실제로 1930년대 이래 조선에서는 매춘여성을 '백색 노예'에 비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49]

---

46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협정」, 『법학논고』 제47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474-475쪽.

47 이는 일본이 1925년 10월 20일 백인 노예매매에 관한 또 다른 조약인 '백인 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1910년 5월 4일 파리에서 체결됨)에 가입함에 따라 해당 협약 제8조 "이 협약에 대한 가입은 당연히 특별한 통고 없이도 동시에 1904년 5월 18일의 협정 전체에 대한 가입을 수반하고 당해 협정은 협약 자체와 같은 날에 가입국의 모든 영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이루어진 것이었다.(위의 글, 475쪽.)

48 협정문의 일본어 번역은 '추업을 목적으로 한 부녀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醜業ヲ行ハシムル為ノ婦女売買禁止ニ関スル国際条約)'으로서 '백인 노예' 또는 '백색 노예'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1934년 12월 14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일본의 폐창 운동을 백색 노예 해방 운동이라 표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해당 기사는 "**백색노예 해방의 소리가 현해탄저편에 놉드니** 총독부에서도 부령(府令)으로써 조선내의 백색노예의 몸을얽고잇는 져주바든 그무서운사슬을 다소간이나마 풀어준다고전하는" 상황 속에서 한 악덕 포주의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병실에서 시드는 "백색노예"의 수탄(愁嘆)」, 『조선일보』, 1934.12.14., 2쪽. 가독성을 위해 한자어는 한글로 표기하였고, 한자어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자어를 병기하였음. 강조는 인용자의 것.)

49 이하 가독성을 위해 한자어는 한글로 표기하였고, 한자어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자어를 병기하였음. 강조는 인용자의 것. "즉녀급은 창기와는 다름에

김말봉 또한 이상의 흐름 속에서 '백색 노예'라는 표현을 수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해방을 맞이하면서 '백색 노예'는 김말봉에게 있어 단순한 비유의 지위를 넘어 공창폐지운동을 구상하는 데에 주요한 기반이 된다. 그런데 '백색 노예' 또는 '백인 노예' 담론은 매춘을 "유독 착취적이며, 늘 강제적이고, 거의 예외 없이 치명적이라고 가정"[50]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같은 가정 속에서 매춘여성은 언제나 '희생자'로만 상상되기 마련이다. 이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성매매에 종사"[51]하는 여성들을 누락시킨다. 그러나 후지메 유키가 지적하듯, 하층 계급의 여성들은 종종 경제적인 이유로 성매매에 종사하기를 직접 '선택'한다.[52] 『찔레꽃』의 옥란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러한 선택을 과연 진정으로 자율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다자키 히데아키의 견해를 주요하게 참조하고자 한다. 다자키 히데아키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일은 분명히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직종과 같은 정도에서 자유로운 선택일 수는 있다".[53] "직업 선택의 자유 안에 취직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에서 완전한 자유란 없"기 때문이다.[54] 그러나 '백

도불구하고 주인들이 전차금을수백원식을주어 그들은거이 영구한 **백색노예**와가튼 처지에 떠러지고 말음으로"(「홍등하의 가련한 전사(戰士) 백색노예화방지」, 『조선일보』, 1934.08.16., 2쪽.); "농중조 **백색노예** 등의 별명을드러가며 신정, 서사헌정 병목정 일대에서 연금(軟禁) 생활을 하는일방 매일밤장리사(張三李四)로뭇남자의품에안기고잇는 창기는 십이월현재팔백여명이나 된다고한다"(「홍등가의 "연말태세" 사변시조(事變時潮)에 불안색」, 『조선일보』, 1937.12.04., 2쪽.); "전채금(前借金)이라는 철사에결박되어 우슴을 팔지안흐면안되는유곽**백색노예**들의 일년동안 정조감찰대금은 얼마나되든가?"(「신정(新町)의 정조감찰대」, 『동아일보』, 1938.01.17., 2쪽.); "전차금이라는철사에 결박되어 웃음을 팔지 안흐면안되는 료리집, 카페—의 **백색노예**들을 보고 일년동안 출입한 손님이 얼마나되는가"(「구포화항호경기」, 『동아일보』, 1938.11.18., 7쪽.)

50 게일 루빈, 「인신매매에 수반되는 문제: 「여성 거래」 재고」, 임옥희 외 역, 『일탈』, 현실문화, 2015, 158쪽.

51 후지메 유키, 김경자·윤경원 역, 『성의 역사학』, 삼인, 2004, 82쪽.

52 위의 책, 82-83쪽.

53 다자키 히데아키, 「성매매종사자운동이 제기하는 문제들」, 다자키 히데아키 외, 김경자 역,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삼인, 2006, 22쪽.

54 위의 책, 23쪽.

색 노예' 담론은 그와 같은 행위성을 소거하고, 나아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의 존재 자체를 비가시화한다. 이는 공창폐지운동을 소설화한 『화려한 지옥』에서도 확인되는 문제인바, 이하의 단락에서는 '백색 노예' 담론에 근거한 『화려한 지옥』의 성노동자 재현이 어떠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화려한 지옥』은 일월루의 창기 채옥이 황영빈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계기로 유곽을 탈출하면서 시작된다. 채옥은 황영빈을 찾아가고자 하지만, 어떻게든 채옥을 데려가겠다고 맹세했던 그에게는 사실 애인(송희)이 따로 있었다. 김황용을 통해 채옥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황영빈은 유곽에 간 것을 후회하며 주변 사람들이, 특히 송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우려한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송희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단박에 해소된다. 편지에는 송희의 어머니가 둘의 약혼을 허락해주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송희는 황영빈에게 "처녀의 정조"(『화려한 지옥』, 330)를 바치고, 이후 둘의 관계는 차츰 위태로워진다. 송희를 "완전히 정복하여 버린"(『화려한 지옥』, 331) 황영빈은 더 이상 송희에게서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송희는 황영빈에 의해 매독에 전염되고 만다. 그런데 이는 한편으론 송희가 공창폐지운동에 동참하는 계기로 기능하기도 한다. 나아가, 첫 만남 때만 해도 채옥을 향해 "일말의 경멸"(『화려한 지옥』, 386)을 느끼던 송희는 매독 환자인 자신과 창기 출신인 채옥이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친구처럼 대하기에 이른다.

엠마 골드만은 「여성 거래(The Traffic in Women)」(1910)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어디에서도 여성은 적성과 능력에 따라 대접받지 못했다. 단지 성적 대상이었다. 따라서 여성은 성적인 매력을 발해야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자기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여성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한 남자나 여러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것은 당연하고 정도만 다를 뿐이다."[55] 이에 대

55 엠마 골드만, 「여성 매춘」, 김시완 역, 『저주받은 아나키즘』, 우물이있는집, 2001, 181쪽. 해당 책은 엠마 골드만의 논문 제목을 '여성 매춘'이라 번역하고 있으나, 본고는 게일 루빈의 「인신매매에 수반되는 문제: 「여성 거래」 재고」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이 글에서 게일 루빈은 자신이 「여성 거래: 성의 '정치경제'에 관한 노트」를 집필할 때 엠마 골드만의 「여성 거래」를 접하고 그 제목을 차용했음을 밝히면서, 'traffic'이라는 단어로 인해 자신의 논문이 불러일으킨 오해에 대해 해명한다. 옮긴이는 게일 루빈이 "거래, 인신매매, 성매매,

해 게일 루빈은 엠마 골드만이 "결혼과 매춘에 둘 다 공통으로 여성의 성이 생계와 교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둘을 연장선상에 놓았다고 분석한다.[56] 같은 맥락에서 송희가 황영빈과의 약혼이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독에 전염된 것, 그리고 이를 계기로 채옥을 비롯한 창기들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게 된 것은 결혼과 매춘의 연결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비매춘여성과 매춘여성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하지만 송희와 채옥의 연대는 송희의 죽음으로 인해 끝까지 지속되지 못한다.

송희는 권총을 전해주기 위해 황영빈을 만난 자리에서 채옥이 잉태한 아이가 그의 아이가 맞는지 묻는다. 그러나 황영빈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창기와 기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이어간다. 기생의 딸인 채옥은 그러한 발언을 참을 수 없었고, 결국 황영빈을 권총으로 사살하기에 이른다.[57] 뒤이어 그는 자신의 옆구리에도 총을 쏴 자살을 시도한다. 비록 그것은 미수에 그치지만, 송희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는 채옥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 같은 채옥-송희의 상반된 운명은 채옥-송희 어머니(양비취)의 상반된 생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채옥은 아편 중독에 걸린 남편에 의해 유곽에 팔려 간 것으로 서술된다. 반면, "일류 명기"(『화려한 지옥』, 333) 출신인 양비취는 열여섯 무렵 단지 치마와 구두를 마음껏 입고 신고 싶다는 "허영"에 이끌려 "어머니 몰래 기생학교로 뛰어 들어갔"다고 그려진다(『화려한 지옥』, 549). 어머니를 모욕한 까닭에 황영빈을 쏴죽인 것이라는 송희의 유언을 들은 양비취는 "자기의 저주받은 일생이 오늘의 이러한 참극을 일으켰다"(『화려한 지옥』, 548-549)고 생각하며 전 재산을 공창폐지연맹에 기부하기로 한다. 이로 보건대, 송희의 죽

매춘의 혼용을 우려하는" 것을 고려하여, 게일 루빈과 엠마 골드만이 사용하는 'traffic'을 '거래'라 번역했다고 전한다.(게일 루빈, 앞의 책, 2015, 151쪽.)

56 게일 루빈, 앞의 책, 2015, 179쪽.

57 최지현은 이 장면에서 "'황영빈'으로 형상화된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에 대한 여성 주체의 "응징"을 읽어내며 이를 통해 여성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서술한다.(최지현, 앞의 글, 2008, 284쪽.) 이는 물론 적절한 분석이지만, 본고는 그렇게 달성된 여성 연대가 송희의 죽음으로 중단되었음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음이라는 사건은 양비취의 회심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인 채옥이 곧바로 공창폐지연맹의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었던 양비취는 딸의 죽음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공창폐지연맹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구제 대상으로 주조된 채옥에겐 행위성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채옥은 일월루에서 도망쳐 나온 뒤 갖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58]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자력으로 해결 또는 탈출하기보다는 타인의 구원에 의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공창폐지연맹의 위원장인 정민혜 여사가 있다. 최종적인 구원자로 등장하는 정민혜 여사는 채옥에게 인신매매 금지령[59]이 선포되었음을 알린다. 사실 채옥은 이미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신매매 금지령에 관한 소식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강연조로 흘러나오는" 말을 채옥이 알아듣기에는 "그의 지식이 너무도 빈약"했던 탓에 해당 소식은 채옥에게 "아무런 기별도 감격도 전하지 못"한다(『화려한 지옥』, 312-313). 즉, 채옥은 정민혜 여사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처지가 변화했음조차 알지 못하는 지극히 무지몽매한 인물인 것이다. 나아가 채옥이 닥터 최와 결혼하게 되는 결말 역시 전적으로 정민혜 여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정민혜 여사는 "희망원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병이 낫고 직업이 훈련이 되고 지식도 어느 정도 계몽이 되면 차례차례 한 가정의 주부로"(『화려한 지옥』, 561) 들여보내리라는 계획 아래 채옥의 결혼을 주선하고자

58 이때 흑인 미군의 존재는 채옥이 겪는 수난을 한층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유곽에서 탈출한 뒤 길거리를 헤매던 중 흑인 미군에게 납치당한 채옥은 "여우를 피하다가 범을 만났다"(『화려한 지옥』, 279)고 생각하고, 그런 채옥은 우현석에 의해 "이방인 흑노에게 유린"당한 "내 자매"로 묘사된다(『화려한 지옥』, 279). 관련하여 게일 루빈은 '백인 노예' 담론에 근거한 문학 작품들이 인종화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게일 루빈에 따르면,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공식에서, 노예가 된 소녀는 보통 토종 백인으로 묘사된다. 그와 반대로 노예 상인들은 피부 빛이 어둡고 검게 그을린 이방인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게일 루빈, 앞의 책, 2015, 161-162면.) 채옥은 백인이 아닐뿐더러 채옥을 착취하는 '노예 상인'은 같은 민족인 김황용이므로 이를 곧바로 『화려한 지옥』에 대입할 순 없겠지만, 흑인 미군의 검은 피부를 마치 공포스러운 요소처럼 그려내는 『화려한 지옥』의 서술 방식은 분명 이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59 1946년 5월 17일에 발표된 군정법령 제70호 〈부녀자의 매매 혹은 그 매매계약의 금지〉를 말한다.

한다. 이때 채옥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채옥의 배필로 닥터 최를 추천하며 신부 쪽의 의견은 어떨지 묻는 박 의사에게 정민혜 여사는 "그것만은 제가 장담해도 좋습니다. 염려 마십시오."(『화려한 지옥』, 562)라고 답한다.

이처럼 유곽을 탈출한 이후 행위성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채옥이 주도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는 집을 뺏길 위험에 처한 영매를 돕기 위해 김황용에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팔아넘긴 것뿐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채옥의 이러한 행위가 소설 내에서 마치 숭고한 희생처럼 그려진다는 점이다. 정민혜 여사는 이 소식을 듣고 채옥을 "기특"하게 여긴다(『화려한 지옥』, 557). 이 대목과 결말 부분을 나란히 두고 보건대, 정민혜 여사가 이끄는 공창폐지운동의 근본 목적은 성매매 자체를 근절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정상 가족을 구축해내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에 따라 잠재적인 성병 보균자인 창기는 제거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김말봉은 해방 이후 성병이 만연해진 세태를 언급하며 "거리에 범람하는 이상스런 몸맵시와 화장을 하고 다니는 유녀(遊女)들은 확실히 우리 성년기에 있는 아들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은 뇌광병자로 만들려는 요마의 무리가 아닐까"라고 쓴 바 있다.[60]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채옥이 선천매독으로 인해 죽은 아이를 출산한 것은 일종의 "신체적 정화 과정"으로서, 채옥은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창기'였던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었다.[61]

『화려한 지옥』은 그 같은 정화 과정을 완수하고 '국민'으로 거듭난 채옥을 비추며 끝이 난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찬 결말의 이면에는 정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않은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존재한다.[62] 이때 공창폐지연맹의 사무실에서

60 김말봉, 「미혼인 젊은 남녀들에게」(『부인』 2(6), 1947.9.), 『김말봉 전집 8: 해방기 단편 서사 모음』,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8b, 155쪽.

61 최지현, 앞의 글, 2008, 280-281쪽. 최지현은 이를 "사회/가정에서 배제된 여성"의 "사회/가정으로의 복귀(귀환)"라 보고 긍정적으로 의미화한다.(같은 글, 287쪽.) 하지만 본고는 정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성매매 여성만이 '국민'으로 호명될 수 있었음을 문제 삼고자 한다.

62 공창 폐지 이후 창기들은 여관 또는 주점 카페에 주로 취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사실상 다른 유형의 성매매 업소였다.(『연합신문』, 1949.2.22., 김말봉, 「[공창폐지 일년 특집] 공창폐지와 그 후 일 개년(個年)」(『연합신문』, 1949.2.22.~24.), 앞의 책, 2018b,

정민혜 여사와 송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주목된다. 정민혜 여사가 송희에게 인신매매 금지령과 공창폐지운동에 관해 일방적으로 설명해주는 구조로 짜여 있는 해당 장면에서 정민혜 여사는 김말봉을 대리하는 듯 보인다. 그는 인신매매 금지령이 발표된 이후 해방된 창기들을 전재민 수용소로 실어 왔으나, 그들이 이틀 만에 다 달아나버렸음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말한다.

> "(…) 데려온 유 여사가 가지 말라고 붙잡으니까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수수밥에 거적자리 위에 건사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너희들 아니라도 우린 우리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뿔뿔이 다 가버렸다는 거야요."
>
> (…)
>
> "그들은 너무 갑자기 전환된 생활에 배겨낼 힘이 없었던가 봐요."
>
> (…)
>
> "유곽에 있는 창기들은 상류와 중류 사이의 생활…… 비교적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침대에 자고 이부자리도 여간 호사가 아니고 먹는 것도 그렇지요. 자기 몸을 잡히고 있으니까 무어든지 부르는 대로 척척 대령이죠.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화려한 지옥』, 345-346)

실제로 창기들은 공창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크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창제 폐지법이 시행되던 1948년 2월 14일, 유곽에서 강제로 내쫓길 처지에 놓인 창기들은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였고, 많은 이들이 이후에도 계속 유곽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창기들은 유곽과 수용소 등지에서 공창 폐지 반대 농성을 벌이거나, 창기연맹대표에게 시청에서 항의 시위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공창폐지령이 사실상 폐창 창기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원하는 창기들의 요구 사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국은 강제퇴거 방침을 내렸다.[63] 결과적으로 공

206-207쪽에서 재인용.)

63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제9호, 역사학연구소, 2001, 236-

창 폐지는 사창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1953년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한 연도별 접대부 검진표에 따르면, 1947년 1만 6,874명이었던 성매매 여성은 1948년에는 4만 2,567명으로, 1949년에는 5만 3,66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64]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정민혜 여사가 창기들의 반발 이유를 '허영'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실 창기들에게 있어 공창폐지는 '생존'을 둘러싼 문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창기들이 수용소를 탈출하는 행위는 생계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활로를 찾아 나서는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김말봉이 구상한 공창폐지운동에는, 그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매춘을 택하는 여성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매춘여성들은 '백색 노예', 즉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 비자발적으로 공창에 팔려 간 이들로 일원화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화려한 지옥』은 자발적인 성매매를 '허영'으로 서둘러 처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비가시화된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은 건국의 초석을 성공적으로 닦았음을 보여주는 듯한 결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들은 채옥과 달리 새 나라의 '국민'으로 호명되지 못한다.

4 나가며: '자발/비자발'의 위계를 넘어서

이상으로 김말봉의 『밀림』, 『찔레꽃』, 『화려한 지옥』 속 성노동자 형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식민지기에 연재된 『밀림』과 『찔레꽃』에서는 성노동자 여성 인물들이 저마다의 욕망과 행위성을 지닌 주체로 등장하는 반면, 해방 이후 출간된 『화려한 지옥』의 성노동자 여성 인물은 그야말로 '백색 노예'로서 행위성이 소거된 존재로 그려짐을 알 수 있었다. 그 같은 변화는 김말봉이 해방 후 공창폐지운동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발/비자발'의 위계를 도입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려한 지옥』의 구원 서사는 이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금지령이 발표된 이후에도 유곽에 남기를 택했던 여성들을 외면한다. 김말봉의 또 다른 공창폐지운동 관련 소설인 『별들의 고향』[65]에는 그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 인

238쪽.

64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170쪽.

물이 등장한다. 유곽 봉황각의 '간판'인 연심은 인신매매 금지령의 공포로 모든 빚이 탕감된 후 전재민 수용소에 가게 되었지만,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곳을 도망쳐 나와 유곽으로 돌아온 인물이다. 그런 연심은 소설의 초반부에서 '자살'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이와 달리, 주변인들의 꼬임에 넘어가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묘사되는 득순은 결말 부분에서 창열에게 "늑대의 껍질을 둘러 쓴 어린 양"(『별들의 고향』, 448)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순결함'의 표상을 되찾은 뒤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존재로 우뚝 선다.

성매매에서의 강제성을 부각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화하는 것은 일견 반성매매 운동의 첫걸음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전략을 취할 경우 당사자 여성들에게는 '구제'되거나(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경우) '배제'당한다는(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경우) 양자택일의 선택지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김말봉의 『태양의 권속』[66]은 이 편협한 구도를 탈피한 새로운 상상력을 내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상공 장관의 비서로 일하는 상칠이 애정 관계에서의 방황을 겪다가 일선으로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태양의 권속』에는 세 여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바로 무역회사의 타이피스트 신희, 사업가 어머니를 둔 설려, 요릿집 서시관의 기생 황매이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매춘여성인 황매와 비매춘여성인 신희·설려 사이의 경계가 소설 내에서 흐릿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희와 설려는 때때로 남성 인물들에 의해 황매와 동질적인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 가령, 토목회사 사장인 신경문은 신희를 황매의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인형감"(『태양의 권속』, 33)으로 인식하고, 상공 장관의 동생인 정현우는 설려의 명랑성을 "돈만 가지면 거리에서 웃음을 파는 여인들에게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품"(『태양의 권속』, 368)과 동일시한다.

---

65 1950년 『서울신문』에 연재되던 중 신문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1953년 정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본고는 김말봉, 『김말봉 전집 6: 별들의 고향』,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6을 참고하였다.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책 제목과 쪽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66 1952년 2월 1일부터 1952년 7월 1일까지 『서울신문』을 통해 연재되었다. 본고는 김말봉, 『김말봉 전집 9: 태양의 권속』,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21을 참고하였다.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책 제목과 쪽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이처럼 여성의 '성'이 자원으로 활용되고 상품으로 기획되는 구조 속에서 성매매 문제는 비단 성매매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자발/비자발'의 이분법은 당사자 여성의 속성을 기준점으로 삼아 이들을 '자발적 성매매 여성'과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구분 짓고 전자를 배제함으로써 성 산업의 작동 원리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성노동 종사 여성들의 다종다양한 욕망과 행위성을 다채롭게 그려냈던 김말봉이 해방 이후 공창폐지운동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성매매/비자발적 성매매'의 구도로 경사됨에 따라 협소화된 성노동자 재현으로 퇴행했음을 짚어내고자 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추출되는 한계를 통해 '자발/비자발'의 위계를 탈피한 성매매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자 했다. 본고는 그것으로 '성노동'이라는 개념 틀을 제안한다. 노파심에 덧붙이건대, 이는 결코 인신매매에 기반한 성매매 유형의 강제적 성격을 부인하거나, 모든 성매매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 '성노동'이란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자원으로 활용되는 구조 자체에 대해 사유하게 함으로써 매춘여성과 비매춘여성이 연결되는 자리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매매 여성은 구제 또는 배제의 대상이 아닌 연대의 대상으로 상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김말봉, 『김말봉 전집 1: 밀림 (상)』,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

_____, 『김말봉 전집 2: 밀림 (하)』,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

_____, 『김말봉 전집 3: 찔레꽃』,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4.

_____, 「화려한 지옥」, 『김말봉 전집 4: 가인의 시장/화려한 지옥』,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5, 261-562쪽.

_____, 『김말봉 전집 6: 별들의 고향』,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6.

_____, 「나의 분격」, 『김말봉 전집 7: 해방 전 단편서사 모음』,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8a, 175-183쪽.

_____, 「미혼인 젊은 남녀들에게」, 『김말봉 전집 8: 해방기 단편서사 모음』, 진

선영 편, 소명출판, 2018b, 153-158쪽.
_____, 「[공창폐지 일년특집] 공창폐지와 그 후 일 개년(個年)」, 『김말봉 전집 8: 해방기 단편서사 모음』,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18b, 201-210쪽.
_____, 『김말봉 전집 9: 태양의 권속』,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21.

『동아일보』『매일신보』『삼천리』『조선일보』

단행본

김대현 외, 『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 휴머니스트, 2022, 81, 96, 197, 230쪽.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편,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그린비, 2007, 103쪽.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5, 64쪽.
화중선 외, 『기생 생활도 신성하다면 신성합니다』, 가갸날, 2019, 70-71쪽.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170쪽.
황미연, 『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 민속원, 2013, 48, 67쪽.
게일 루빈, 임옥희 외 역, 『일탈』, 현실문화, 2015, 151, 158, 161-162, 179쪽.
다자키 히데아키 외, 김경자 역,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삼인, 2006, 22쪽.
미리엄 실버버그, 강진석·강현정·서미석 역,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 근대 일본의 대중문화』, 현실문화연구, 2014, 161쪽.
엠마 골드만, 김시완 역, 『저주받은 아나키즘』, 우물이있는집, 2001, 181쪽.
후지메 유키, 김경자·윤경원 역, 『성의 역사학』, 삼인, 2004, 82-83쪽.

논문

김미영, 「김말봉의 《密林》과 《찔레꽃》의 독자수용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고찰」, 『어문학』 제107호, 한국어문학회, 2010, 219-243쪽.
김연희, 「日帝下 京城地域 카페의 都市文化的 特性」,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주희·황유나, 「'성매매는 성착취' 구호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한국여성학』

제40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24, 213-247쪽.
김창윤,「일제 통감부 시기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제20권 제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91-114쪽.
문은미,「노동자원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연구」,『여/성이론』3, 도사출판여이연, 2000, 149-170쪽.
민가영,「성매매를 통한 친밀함의 모방」,『한국여성학』제35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19, 121-150쪽.
박산향,「김말봉 장편소설의 남녀 이미지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김말봉 단편소설의 서사적 특징 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제16권 제3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17-138쪽.
박선희,「김말봉의『佳人의 市場』개작과 여성운동」,『우리말글』제54집, 우리말글학회, 2012, 267-296쪽.
박애경,「기생을 바라보는 근대의 시선-근대 초기 신문 매체에 나타난 기생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323-357쪽.
박정미,「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a.
_____,「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페미니즘 연구』제11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1b, 199-238쪽.
_____,「'여자'가 '보호'를 만났을 때: 요보호여자시설, 기록과 증언」,『아시아여성연구』제60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41-82쪽.
박정애,「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박종홍,「김말봉『밀림』의 통속성 고찰」,『어문학』제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341-362쪽.
박진경·미야지마 요코,「카페의 식민지근대, 식민지근대의 카페: 재조일본인 사회, 카페/여급, 경성」,『한국여성학』, 제36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20, 111-151쪽.
배상미,「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 운동의 한계-

김말봉의《화려한 지옥》, 박계주의《진리의 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313-350쪽.

_____,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 제58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283-312쪽.

_____,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에 재현된 삐라를 둘러싼 정동과 출판문화」, 『우리어문연구』 제65호, 우리어문학회, 2019, 7-37쪽.

_____, 「공창폐지 운동과 그 유산-김말봉의 『화려한 지옥』과 『별들의 고향』」, 『현대소설연구』 제9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71-108쪽.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Ⅱ)-'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433-464쪽.

_____,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Ⅲ)-기생 잡지 〈長恨〉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53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347-385쪽.

안서현, 「젠더, 서사, 지도-김말봉의 초기 장편소설에 대한 '지도 그리기'의 시도」,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3, 107-133쪽.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제9호, 역사학연구소, 2001, 207-244쪽.

장두영,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9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317-350쪽.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9권, 한국여성사학회, 2008, 79-119쪽.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협정」, 『법학논고』 제47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467-494쪽.

최미진, 「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 『현대소설연구』 제3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97-120쪽.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 연대(solidarity) 연구-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67-292쪽.

황수연, 「조선후기 첩과 아내-은폐된 갈등과 전략적 화해」,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제1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49-380쪽.

Abstract

‘Sex Workers’ in Kim Mal-bong’s Novels

Byeon, Hayeon

In existing studies, analyses of Kim Mal-bong’s figuration of sex workers have tended to focus on novels about the campaign to abolish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which are published after the liberation period.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Kim’s figuration of sex workers including her novel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selected texts are “The Dense Forest”(1935-1938), “The Multiflora Rose”(1937), and “The Splendid Hell”(1951). By focusing on how female sex workers are portrayed in each novels, I found that they are presented as subjects with their own desires and agency in “The Dense Forest” and “The Multiflora Rose”, while their agency is absent in “The Splendid Hell”. This paper traces the cause of this regression to Kim’s inclination toward the dichotomy of ‘voluntary/non-voluntary prostitution’. Furthermore,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 paradigm of prostitution which breaks away from the ‘voluntary/non-voluntary’ dichotomy. The conceptual framework of ‘sex work’ could be an alternative. It is a broader concept which could connect prostituted women and non-prostituted women. Through this, we can imagine prostituted women as objects of solidarity rather than of salvation or exclusion.

Key words: Kim Mal-bong, Sex Work, Gisaeng,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White Slave

논문투고 / 2024.07.15.
논문접수 / 2024.07.22.
게재확정 / 2024.08.05.